

## 「假明人頭上에 一棒」과 儒敎의 眞髓 (四)

저자 미상

二, 要旨。易에 같오대 乾道變化하야 各正性命이라 하얏스니, 大概 天之於 中形에 物物히 刻하고 彫함은 아니라. 萬殊 가운데 一本이 自有하며 一本이 自發하야 萬殊가 되얏나니, 然則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諸般 道德을 包含한 儒道를 一以貫之하는 根本原理는 무엇인고? 儒敎의 目的과 地位는 以上에 임의 論述하얏거니와, 그는 오즉 用이라 體가 아니니 吾人은 이에 그 體를 論究코자 하노라.

昔에 孔夫子 갈아사대 『賜也아! 女 | 以予로 爲多學而識之者與아?』하신대 對호대 『然하이다. 非與잇가?』한대, 子 갈아사대 『非也라. 予는 一以貫之니라.』하시고, 又曰 『參乎아! 吾道는 一以貫之니라.』하신대 曾子 갈아사대 『唯』라 하섯스니, 前者는 孔子의 知 | 多學하야 識之함의 所致가 아니라, 그 心이 至虛至明하야 渾然 中에 萬里가 融會貫通한 故로 聲入心通하야 無所違逆함을 指함이오. 後者는 孔子의 行 | 事事情密하야 力行함이 아니라, 用各不同하나 그 心이 渾然一理에 泛應曲當함을 指함이니, 然則 知行 兩方을 貫而通之한 此 『一』者는 儒敎의 大本이라 하리로다.

此一은 무엇인고? 或은 같오대 『精粹無雜者는 一也오, 終始無間者는 一也오, 該括萬善者는 一也니』 一者는 通古今하며 達上하야 萬化之原이오 萬事之 幹이라. 語其理則無二하며 語其連則無息하며 語其體則并包而無所遺라.』하나 그러나 이도 그 內容을 情密確定히 言表함이 아니니, 大概 精粹無雜과 終始無間과 該括萬善은 오즉 抽象的이며 具體的이 아니오, 學理的이며 實驗的이 아니라. 噫라! 天下의 達道 儒敎의 大本을 實驗的으로 言表함이 엇지 그 容易한 事이리오. 英雄이 아니면 英雄을 아지 못하는지라. 聖人이 아니오 엇지 聖人을 知하리오. 顏子의 賢으로도 喟然히 歎하야 갈아대 『仰之彌高하며 鑽之彌堅하며 瞻之在前이더니 忽焉在後로다.』하야, 그 道의 窮盡이 無하며 方體가 無함을 歎하야 『欲罷不能하야 既竭吾才하니 如有所立이 卓爾라. 雖欲從之나 末由也己로다.』하얏스니, 況且 凡人의 무리 엇지 그 至精至純한 道의 大本을 體得하야 言表할 수 잇스리오. 그러나 道의 味 | 오즉 體得에 在하며

言語에 在하지 아니하고, 또한 體得한 者 아니면 能히 그 眞正한 內容을 아  
지 못하는도다.

孔門弟子 물어 갈오대 『一以貫之』는 何謂也잇고? 한대 曾子 | 갈아사대 『  
夫子之道는 忠恕而已矣이라.』 하섯스니, 曾子는 誰오? 孔門道統을 繼承하신  
賢哲이라. 그 靈覺大知는 孔子呼而告之하심에 速應無疑함을 見하야 可히 知  
할지니 然則 孔子의 道 오즉 忠恕而已矣라 할지니, 그러면 忠恕는 무엇인고?

中庸에 依하건대 天命之謂性이오 率性之謂道라 하며, 又曰 中也者는 天下  
之大本也오 和也者도 天下之達道이라 하며, 致中和면 天地位焉하며 萬物育焉  
이라 하고, 又曰 誠者는 天之道也 | 오 誠之者는 人之道也니 誠者는 不勉而中  
하며 不思而得하야 從容中道라 하며, 惟天下至誠이야 爲能盡其性이라 하며,  
自誠明을 謂之性이라 하고, 又曰 誠者는 物之終始니 不誠이면 無物이라 하  
며, 至誠은 無息이라 하얏도다.

孟子에 依하건대 盡其心者는 知其性也니 知其性則知天矣라 하며, 養其性  
은 所以事天이라 하고, 堯舜은 性之也오. 湯武는 身之也라 하며, 仁也者는 人  
也니 合而言之면 道也니라 하며, 孔子 또한 갈아사대 道 | 二니 仁與不仁而  
已矣니라 하섯도다.

然則 所謂 天과 性이며 中과 和이며 誠과 仁은 무엇인고? 中은 喜怒哀樂  
의 未發이니 곳 性이며, 和는 그 發하야 다 中節함이니 곳 性의 動이며, 誠  
은 天理의 純亦不已함을 指함이니 곳 性의 明이며, 仁은 穀種의 生生之理와  
如함이니 곳 性은 生命이며, 天은 오즉 性의 所由이니 곳 性은 本源이라. 故  
로 性之身之하신 聖人은 仁義禮智根於心하야 醉飽라. 其生色也 | 粹然見於面  
하며 盎於背하며 施於四體하야 四體不言而喻할 뿐 아니라 與天地로 合其德  
하며 與日月로 合其明하나니, 然則 惟人性은 天地의 神明, 宇宙의 實體로 與  
一이라 할지라. 이 『明明德』으로 大道의 根源을 作하며 各種 道德의 基礎를  
成하는 所以로다. 然則 忠恕를 可知니 忠者는 無妄이라 故 率性이오, 恕者는  
所以行乎忠이라 故 率性이니, 換言하면 忠恕는 於穆不已之天命에 基本하야써  
그 性을 發揮함이라. 이 所謂 精粹無雜과 終始無間과 該括萬善이니, 允執厥  
中者 엇지 그 이에서 버서나며, 夫子一以貫之之道 엇지 이에 他하리오. 然則  
明德率性은 儒道의 大旨라 하노라.

三, 儒敎의 生命. 宗教의 生命은 말에 잇지 아니하고, 오즉 權能에 잇스니  
그 敎理 | 設想 深遠奧妙를 極한다 할지라도 이를 能히 體現하야써 絶對偉  
대한 人格의 權威를 立하지 못하면, 이는 浮萍과 枯草에 不過하야 決局 虛無  
에 歸함을 不免할이니, 故로 余는 云하대 宗教의 生命은 그 敎主의 人格에  
在하다 하노라. 이제 儒敎를 見하건대 孔夫子의 人格이 溫良恭儉讓하시사 그

無隱하심이 天日과 如히 千秋에 德을 遺하며 光을 輝하니, 設想 儒敎에 附屬한 各種 社會的 時代的 形式과 着衣는 淘汰를 受하며 變遷을 遂한다 할지라도, 그 體 『明德』, 『率性』과 그 生命 孔夫子의 光彩는 益益彰揚하리라 思하노라.

四, 朝鮮民族의 前途와의 關係는 如何하뇨? 現今 朝鮮 青年은 一括히 儒敎를 排斥하는 傾向이 有하나 此는 玉石을 俱焚하는 弊라 할지니, 何故오 하면 勿論 儒敎에는 現時 民主主義에 適當치 못한 各種 敎訓과 思想과 習慣과 制度가 有하나, 그러나 그는 萬世에 不易하는 本體가 아니라, 오즉 時代的 또는 特殊한 社會的 着衣에 不過함이니, 이는 時代의 推移와 社會의 變遷을 隨하여 更改함이 可하거니와, 그 要旨 『明德率性』이야 엇지 吾人의 排斥할 바 | 리오. 이는 人이 人된 以上에는 免코자 하되 免치 못할 天秩이라. 大概 新青年이 確立코자 하는 新道德은 무엇인고? 人格主義가 이 아닌가? 人格은 무엇인고? 天命之性을 充分히 發揮함이라. 그러면 이 明德을 밝히 하여 修身하는 大學의 道와 何의 異함이 有하리오! 然則 吾人의 希望하는 바는 儒林이나 新青年을 勿論하고 天性을 尤益 研究하여써 一大文化를 樹立함이니, 그 本質은 仁義禮智信이오, 또한 自由와 平等이로다.

(完)